

# 두통에 대한 삼천포와 봉창의 교훈

박승원 · 중앙대 부속 용산병원 신경외과 부교수

우리나라 말에 주의하지 않고 일을 하거나 판단을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를 빗대어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표현이 있다. 그 기원에 대하여서는 이론이 많지만 가장 신빙성이 있는 설명은 기차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옛날 주로 기차로 여행하던 시절의 이야기로, 기차를 타고 진주로 가는 중간에는 계양이라는 역이 있는데 이곳에서 진주행과 삼천포행 객차가 분리되어 각자 진주와 삼천포로 갈라져 갔었다고 한다. 이 때 진주로 가는 손님들은 진주행 객차로 옮겨 타야 하는데 잘못하면 그대로 삼천포행 객차에 탄 채로 반도 끝자락의 오지인 삼천포까지 내려가야 했고, 다시 돌아오려면 같은 길을 되돌아 계양역까지 나와야 하는 수고를 겪어야만 했던 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삼천포는 지금 사천시로 불리고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의 처녀 출전지로 알려져 있고 앞으로는 우주선 발사대가 들어설 지역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관광 목적으로 일부러 삼천포로 빠지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제는 옛말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겠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말이 있다. 봉창은 우리 옛날 초가집에 채광이나 통풍을 위해 벽에 구멍을 뚫고 한지를 발라 만들어 놓은 고정식 창이다. 당연히 열리지 않는 창문이다. 그런

데 자다가 덜 깬 정신에 이 봉창을 열어보려고 두드리는 형상이니, 이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실행한 행동이 되지 않는 엉뚱한 해결책이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을 잘 살펴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교훈적 의미가 있으며,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즈음 한반도는 웰빙(well-being) 열풍이 일고 있다. ‘웰빙’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2000년 이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이후에 확산이 되고 있지만 세계 정상 수준의 인터넷과 미디어 덕분에 단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무서운 기세로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무엇이든 건강에 좋은 것이라면 이를 찾고 쫓는 세태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이다. 역사상 웰빙을 추구한 대표적인 인물로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황도 스러져갔고, 중국에서 진시황의 진짜 무덤을 찾았느니 하는 소식을 접할 때면 인생이 무상함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건강히 사는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웰빙의 구체적 실천 내용을 살펴보면 섭생, 운동 및 레저, 그리고 질병 관련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필자와 같은 의사들이 관여하는 분야는 주로 질병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병의 예

방, 진단, 치료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공통적 관심사의 제1순위는 아무래도 질병의 조기진단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이유도 그렇고, 어떤 질환이건 간에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조기진단이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웰빙 바람에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 및 상업정신의 의기투합으로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많은 부분을 조기진단 관련 정보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양적 팽창에 비하여 질적인 면은 아직 미흡하다. 조기진단은 병원의 첨단 장비를 이용한 진단과 환자 스스로 몇 가지 증상을 단서로 하여 미리 특정 질환에 대한 경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전문가가 판단을 하게 되므로 일반인에게 직접적인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계몽 및 교육의 목적이 있는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의 정확성이 결여되거나 사전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단순 습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특히 인터넷과 방송에서 매일 뱉어내고 있는 조기진단 정보는 균형적인 지식의 공유나 건강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차원을 지나 환자에게 잘못된 자가진단과 엉뚱한 치료법을 강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가히 삼천포로 빠지게 하고 봉창을 두드리게 하는 세태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구조상 다양한 기관에서 넓은 의미의 질병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병원에 찾아오기 전에 이미 어떤 형태로든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두통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통이 있으

면 우선 증풍을 걱정하게 되고, 여기에 손이라도 저릴라치면 틀림없이 증풍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병이 증풍일 것으로 예단하게 된 환자들은 다양한 의료 관련 전문가들을 찾아가게 되고, 이상하게도 그 전문가들 중 많은 경우에 별 의심 없이 증풍에 대한 치료를 해주곤 한다.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만연된 잘못된 정보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증세가 증풍과 같다고 생각하는 두통 환자의 대부분은 증풍과 무관한 경우이다. 이 중 특히 많은 경우가 '후두신경통'에 의한 두통이다. 후두신경통은 뒷머리에 통증이 있고, 경우에 따라 뒷목 통증, 어깨 결림, 손 저림, 안구 통증, 시력저하, 어지러움증, 기억력 저하, 이명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증세를 동반할 수 있어서 종종 증풍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곤 한다.

그러나 증풍에 대한 치료로는 호전되지 않는다. 이 질환은 원천적으로 목관절 및 주변근육과 관련된 증상으로 두피에 존재하는 말초신경인 '후두신경'이 자극되어 나타나는 증세이다. 당연히 말초신경 자극이나 관절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여야 되며, 치료의 효과는 매우 좋아서 환자 본인도 놀랄 정도로 증세가 쉽게 없어진다.

그러나 언제나 관건은 정확한 진단이다. 잘못된 판단으로 몇 년씩 고생을 하여도 좋아지지 않아 평생의 고질병으로 알고 지내던 환자가 고작 몇 개의 흔한 알약 복용으로 회복되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환자들이 시류에 휘말려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길을 안내하고, 봉창이 아니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나라 의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㉞